

곡성군, 백세미 누룽지 포장 자동화... 쌀소비 박차

누룽지 활용 매출 48억원 기록 누룽지 외 쌀 가공품 개발 주력

곡성군이 백세미 컵 누룽지 포장 자동화 사업을 추진, 생산 확대에 나섰다. 전남 고품질 브랜드 쌀로 3년 연속 선정된 백세미는 밥쌀용으로 소비됐으나 컵누룽지 포장 자동화로 쌀 소비 촉진과 가공 확대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6일 곡성군에 따르면 대표 유기농 친환경 쌀 가공품인 석곡농협 백세미 컵누룽지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개발한 컵 누룽지는 누룽지는 자체 생산을 하지만 누룽지 컵포장은 다른 업체에 의뢰해 만드는 위탁생산(OEM)으로 진행되고 있다.

컵 누룽지를 포장한 개당 비용이 550

원 소요돼 포장비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곡성군은 1억 8000만원 사업비를 지원해 누룽지 포장 자동화 설비를 지원한다.

제작년 12월부터 시험 가능한 누룽지 공장은 제조 매뉴얼 정립을 거쳐 지난해부터 누룽지 생산하고 있다.

유기농 백세미 컵 누룽지는 뜨거운 물만 부으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제작됐다. 컵 누룽지는 출시되자마자 농협 기프트볼 등에서 주문이 쇄도하며 소비자의 인기를 끌고 있다.

군은 친환경 쌀소비 시장과 가공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2021년~2022년 친환경 쌀산업 고도화 단지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석곡농협 백세미 방앗간 부지에 330㎡ 규모의 누룽지 가공 공장을



곡성군이 백세미 컵 누룽지 자동화 사업을 시행, 생산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곡성군 제공

조성했으며 지난해에는 건조시설을 추가로 구축했다.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로 3년 연

속 선정된 곡성군 백세미는 밥쌀용으로 판매돼 왔지만 최근 쌀소비 촉진과 가공 확대를 위해 누룽지를 만들어 판로를 넓히고 있다. 지난해 1137톤이 판매돼 매출액 48억원을 달성했다. 그 중 누룽지로 18톤을 소비했다.

백세미 생산은 농협을 중심으로 유기농 친환경농업 계약재배 단지를 조성하고 종자와 육묘 공급, 병해충 방제, 수확, 건조, 가공까지 전 재배 과정이 이뤄지고 있다. 행정에서는 친환경 재배와 시설 지원을 함께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백세미는 친환경 명품쌀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기존 백세미 누룽지 상품 외 쌀 소비를 높이기 위한 쌀 가공품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곡성=김대영 기자

'드론 취·창업' 무료 교육생 모집 영광군, 4월7일 마감

영광군은 '영광형 K-드론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드론 전문 인력 양성과정 1기 교육생 10명을 오는 4월7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미취업 구직자, 취업 취약계층, 중·장년층 구직자 등이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선발된 교육생들은 이론, 시뮬레이터 교육, 소형드론 조정·실전 비행교육 등 취·창업에 필요한 실무 위주의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희망자는 내달 7일까지 (사)영광드론협회 이메일(iikoreaii1004@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교육생은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하며 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영광드론협회(061-353-6113)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김도윤 기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곡성군, 최대 50만원

곡성군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카드 수수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곡성군에 주민등록과 사업자 등록이 돼 있으며 2021년도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지역 내 소상공인 사업장이다.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에게는 2021년도 카드 매출액의 0.8%, 업체당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다음달 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홈페이지(<http://www.gokseong.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곡성=김대영 기자

저작권 상담·해결서비스 지원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인용)이 운영하는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가 지역 중소기업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저작권 상담·해결서비스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저작권 상담서비스와 분쟁 및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작권 해결서비스를 지원한다.

저작권 상담서비스는 저작권 관련 정보나 제도 등에 대한 상시 상담을 비롯해 법률 검토 및 저작권 사업화 등의 전문가 자문을 제공한다.

저작권 해결서비스는 저작권 침해 당사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작권 분쟁조정 제도 신청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변호사 연계 법률 자문을 통해 검토보고서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도내 소재한 1인·중소기업과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저작권 해결서비스 지원의 경우 저작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다수의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업당 1회로 지원 횟수가 제한된다.

접수 기간은 사업공고 개시일로부터 사업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며 접수는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을 통해 진행된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사업 공고문, 담당자(061-280-7495)에 문의하면 된다. 박간재 기자



영광군, 복숭아 수분수정 재배기술 교육

영광군이 시설복숭아 재배농가 대상으로 '복사꽃의 수분수정 기술에 대한 내용으로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 영광군 제공

곡성여행 '농촌愛 올래'... 트레킹·비건 쌀요구르트 체험

농촌관광 활성화 위해 홍보

곡성군이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트레킹상품-농촌애'를 개발하고 본격 홍보에 나선다.

곡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으로 선정된 '농촌애 올래' 관광상품을 개발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촌애 올래' 관광상품은 섬진강트레킹, 태안사숲트레킹, 비건쌀코지요구르트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이중 섬진강트레킹과 태안사숲트레킹

은 로컬가이드가 동행하지 않으며 여행자가 사전 미팅을 통해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행을 하면 된다.

섬진강과 태안사 숲을 걸으며 지역민이 생산한 간식 꾸러미와 곡성 특산물이 담긴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국립곡성치유의숲에서 진행되는 숲치유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비건쌀코지요구르트 체험 프로그램은 건강반효밥상과 쌀코지(쌀누룩) 요구르트 만들기로 구성돼 있으며 집에서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만들기 키트도 제공된다.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은 지역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을 활용한 곡성꿈돌자학교 숲·생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곡성꿈돌자학교는 초등 저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는 '꿈돌자 트리 클라이밍'을 비롯해 섬진강 침실습지에서 놀면서 자연을 배울 수 있는 '자연과 놀자'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곡성은 섬진강을 비롯해 농촌, 산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천혜의 자연속에서 힐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곡성=김대영 기자

'농사철 식사 부담 해소'... 곡성 마을공동급식 추진

128개 마을 대상 예산지원

곡성군이 농번기를 맞아 농민의 식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곡성군은 농사가 시작되는 다음달부터 점심공동급식을 운영하는 지역 128개 마을에 예산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곡성지역 인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2만5422명으로 이중 65세 이상 9193명(36.2%)이다.

총 1만2761가구 중 1인 거주가 5307가구(41.6%)로 가장 많았으며 2인 4396가구(34.4%), 3인 1687가구(13.2%), 4인 이상 1371가구(10.7%) 순이다.

마을공동급식은 농사를 짓는 고령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사업으로 각 마을에서 지정된 1~2인이 단체급식을 할 수 있는 마을회관 등에서 식사를 준비한다.

급식 지정자는 단체급식에 필요한 위생·안전교육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20명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급식 마을에는 조리원의 인건비와 부식비 등 최대 242만원까지 지원된다. 공동급식이 어려운 마을은 반찬을 공급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농번기철 여성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줄여주고 급식을 통해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지원 방식 다양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곡성=김대영 기자

농업인 안전보험 등 가입 지원 화순군, 농촌 생활안전망 구축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농업인 안전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화순군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관련 재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과 작업근로자를 보호하고 농촌의 생활 안정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으로 농업인 안전보험료를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만 15~87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이다. 보조는 80%이며 자부담 20% 중 10%를 군비로 추가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로 농기계 종합보험 자부담률은 20%이다. 화순=김선중 기자

봄철 마늘·양파 관리 철저 당부 전남농기원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박흥재)은 봄철 마늘·양파밭 수분·병해충 관리 철저히 당부했다.

마늘 생육이 32.6cm, 양파 30.2cm로 전년과 비슷하나 평년보다 생육이 부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균병은 기온이 낮고 습기가 많을 때, 잎마름병은 기온과 습도가 높은 기상환경에서 발생하기 쉽다.

양파 노균병은 월동 전 육묘기나 본밭에서 감염돼 2~3월 중 발생하며 관리가 안되면 4월까지 지속된다.

감염되면 잎이 연두색으로 변하면서 아래로 처지며 전체가 위축되는 증상을 보이면서 고사한다.

잎마름병은 잎 표면에 동그란 모양의 병반이 형성되고 검정색 포자가 관찰된다. 배수가 잘 안되는 논에서 재배하는 경우 감염에 취약해진다.

노균병과 잎마름병 방제용 살균제는 농촌진흥청 검색 포털 농사로(www.nongsaro.go.kr)에서 '농업자재-농약-농약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관수 전남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 "마늘·양파 최대 주산단지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작별별 병해충 방제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